

【국 어】

1.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시계 [시계/시계]
- ② 문법 [문뺨/뭍뺨]
- ③ 읊고 [읍꼬]
- ④ 되어 [되여/되여]

2. 국어의 특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애음(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유성음’의 3항 대립을 보인다.
- ②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적 특성을 보인다.
- ③ 음절 초에 ‘ㄱ’, ‘ㄷ’, ‘ㅁ’ 등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올 수 있다.
- ④ 화용론적으로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3.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탈락 :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② 첨가 : ‘ㄴ’ 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 ③ 축약 :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ㅂ,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 ④ 교체(대치) :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4.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 첫사랑 | ㉡ 횃수 | ㉢ 등곶길 | ㉣ 소나깃밥 |
| ① ㉠㉡ | ② ㉠㉣ | ③ ㉡㉢ | ④ ㉡㉢㉣ |

5. 다음 문장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 저 나뭇잎은 참 빨갛다.
- ① 저
 - ② 은
 - ③ 참
 - ④ 빨갛-

6.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표기법은 1986년에 고시되었다. 현재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① 제1항
 - ② 제2항
 - ③ 제3항
 - ④ 제4항

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장]
 불·휘 기·폰 남·곤 벳·매 아·니 : 뫼·썩
 궂 : 도·코 여·름 ·하·느·니
 : 식·미 기·폰 ·므·른 ·ᄃᄃ·래 아·니 그·출·썩
 :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125장]
 千世 우·회 미·리 定·ᄃᄃ·산 漢水北·에
 累仁開國·ᄃᄃ·샤 卜年·이 : ᄃ : 업·스시·니
 聖神·이 : 니·스·샤·도 敬天勤民·ᄃᄃ·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예 山行 ·가 이·셔 ·하나·뵈
 미·드·니잇·가

- ① 중세 국어의 ‘-오/우-’는 대상법 및 인칭법 선어말어미로서 ‘定ᄃᄃ산’, ‘아르쇼셔’ 등에 쓰였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기능이 소실되고 이후 점차 소멸되었다.
- ②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가’와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어미 ‘-니잇고’가 있었고 ‘미드니잇가’는 상대 높임법의 ᄃᄃ쇼셔체에 해당한다.
- ③ ‘-시/샤-’ (주체 높임법), ‘-습/습/줍-’ (객체 높임법), ‘-이/잇-’ (상대 높임법) 등 높임법이 발달해 있었고 높임의 호격 조사 ‘아’는 ᄃᄃ중성 체언 다음에 쓰였다.
- ④ 주격 조사 ‘이’는 ‘이’뿐만 아니라 ‘ㅣ’로 나타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고 부사격 조사 ‘애’는 ‘에, 예’나 ‘익, 의’ 등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8. 다음 밑줄 친 차자 표기의 차용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 | |
|---------------------|-------------|
| 吾勝不喻慙勝伊賜等
㉠ |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
|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 ㉢ ㉣ | 고졸 짓거 바도림다 |

- ① ㉠
- ② ㉡
- ③ ㉢
- ④ ㉣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은 흘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흘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흘문장이 뒤의 흘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 ① ㉠ :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 ② ㉠ :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온다.
- ③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 ④ ㉡ :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10.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직자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② 이 약은 예전부터 우리 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 ③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 ④ 그는 내키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는다.

1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① ㉠ : 가난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일컫는다.
- ② ㉡ : 팔리지 않은 고기들이 은전으로 보일 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한다.
- ③ ㉢ :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가 멀리 있었음을 나타낸다.
- ④ ㉣ : 어머니의 고달프고 한스러운 삶을 견디는 희망을 상징한다.

12.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耜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갯이여.

- ① 표현 기교가 뛰어난 작품으로 「제망매가」와 함께 향가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 ②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그의 높은 덕을 기리고 있는 작품이다.
- ③ ㉠에서 화자는 지금은 없는 기파랑의 자취를 찾으며 슬퍼하고 있다.
- ④ ㉡에서 화자는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잣나무 가지와 눈에 비유하고 있다.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사또 들어가 단좌(端坐)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洋洋)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 저분,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韻)을 낼 제,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결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렴(無廉)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제(政體)를 생각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호(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측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뿔싸, 일이 났다.’

- ① ㉠ : 잔치에 어울리는 비교적 빠른 장단을 일컫는다.
- ② ㉡ : 언어유희적 표현에 의해 해학성이 나타난다.
- ③ ㉢ :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 ④ ㉣ : 운봉은 결인이 어사또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14~15)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찌면 글썽……, 내 윈! 신세 간 데 없지요.

자, 십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身分)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몸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가지굴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짚검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별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로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해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짜 한 나이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수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14.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많은 힘을 들여 애를 씀.
- ② ㉡ : 더할 수 없이 매우 가난함.
- ③ ㉢ : 끈기가 있고 모질.
- ④ ㉣ : 늙은 뒤의 운수나 처지.

15.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는 판소리 사설을 차용하여 풍자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소설 속 관찰자가 자신의 판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결과적으로 긍정적 서술자가 부정적 인물인 아저씨를 비판한다.
- ④ 현실적 삶의 방식과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이 동시에 나타난다.

16.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환웅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이다.—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고 부르니, 이분이 곧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의 삼백예순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敎化)하였다.

- | | |
|------|-----|
| ㉠ | ㉡ |
| ① 桓雄 | 神壇水 |
| ② 桓雄 | 神壇樹 |
| ③ 桓熊 | 神端水 |
| ④ 桓熊 | 神端樹 |

17. 다음 내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불잡아 일으키기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① 殃及池魚
- ② 渴而穿井
- ③ 亡羊補牢
- ④ 死後藥方文

18. 다음 한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 ①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 ③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는데,
유자(柚子) | 안이라도 품엄 즉도 흥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식 글노 설워 흥노이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 흥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흥노라.

19.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경 머루 먹듯 :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이나 취함.
- ② 재미난 골에 범 난다 : 즐거운 일을 찾아 계속하다 보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음.
- ③ 햇묵에도 씨가 있다 :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물건에도 제 속은 있음.
- ④ 가물에 돌 친다 : 가뭄에 도랑을 미리 치워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20. 토론에서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련 자료, 주변 상황, 관점 등을 검토하여 논제를 이해한다.
- ②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쟁점을 찾아 핵심 쟁점과 하위 쟁점을 정리한다.
- ③ 차이를 극복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
- ④ 주장의 전제나 논거를 검토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판단한다.